IT 장비

기가비스 420770

역대급 패키지기판 증설 사이클의 대표 수혜주

Nov 9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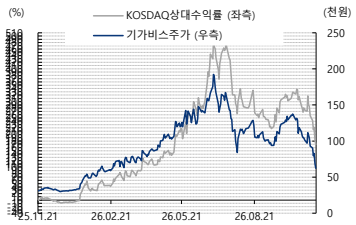
BUY 신규

TP 160,000 원 신규

Company Data

현재가(11/06)	62,400 원
액면가(원)	200 원
52 주 최고가(보통주)	192,200 원
52 주 최저가(보통주)	29,950 원
KOSPI (11/06)	5,059.69p
KOSDAQ (11/06)	644.27p
자본금	25 억원
시가총액	7,910 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1,268 만주
발행주식수(우선주)	0 만주
평균거래량(60 일)	17.1 만주
평균거래대금(60 일)	174 억원
외국인지분(보통주)	6.05%
주요주주	
김종준 외 3 인	47.9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 개월	6 개월	12 개월
절대주가	-53.9	-39.7	79.6
상대주가	-34.2	13.4	150.3

반도체 기판 미세 회로 검사 및 수리 장비 제조 기업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의 미세회로를 검사하고 결함을 수리함에 따라 후속 공정에 투입할 양품 확보를 지원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핵심 고객사로 선도 패키지기판 업체들 다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Top-Tier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미세회로 검사 부문에서는 글로벌 M/S 약 60% 수준을 차지하는 선도 장비 업체. 고객의 양산 조건에 맞춰 구현해온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결함 판별 및 수리 로직, 공정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대응 역량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후속 세대 및 차세대 기술에서도 입지가 이어질 전망.

역대급 패키지기판 투자 사이클 도래

기가비스는 AI향 패키지기판 증설 규모 확대와 구조적으로 동행하는 선도 장비 기업. 먼저, Agentic AI 시대에 접어들며 AI 반도체들의 연계 요청 처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AI 칩들의 중요성이 고조. 이는 패키지기판 성능 고도화 즉, 대면적화 및 고다층화를 요구하고 있어 ABF 기판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야기. 특히, 증가된 투자 규모에도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데 핵심 근거로 1) AI 반도체의 요구 성능으로 인한 생산 부하 증가가 강하게 감지된다는 점과 2) AI 반도체 수요처들의 선수금이 최근 증설 자금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 Ibiden에 따르면 공정 부하로 인해 시장 물량 확대를 AI 반도체가 야기할 물량 증가를 약 1.8배 수준으로 제시한 반면 관련 공정 수요는 약 5.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 또한 최근 Nvidia는 GTC에서 복수의 패키지기판 공급사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선수금 중심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추세를 증명. 기가비스는 이러한 투자 확대가 실질적인 동사의 장비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급 입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AI 산업 방향이 야기할 역대급 사이클과 함께 강한 성장의 초입이라고 판단.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60,000원 제시

기가비스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6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2027년 매출액은 2,974억원(YoY +198.0%), 영업이익 1,233억원(YoY +307.8%, OPM 41.4%)으로 추정. 올해부터 본격화된 수주를 바탕으로 2027년 실적은 다소 가시적이라고 판단. 최근 ABF 기판 투자 강도 및 추이를 감안하면 2028년까지도 추가 실적 성장이 가능한 수준의 신규 수주가 내년에도 기대. 역대급 패키지기판 증설 사이클의 대표 수혜주로 평가가 필요한 시점.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12 결산(억원)	2024.12	2025.12	2026.12E	2027.12E	2028.12E
매출액(억원)	**261**	**524**	**998**	**2,974**	**3,784**
YoY(%)	NA	100.6	90.3	198.0	27.2
영업이익(억원)	**-18**	**121**	**302**	**1,233**	**1,595**
OP 마진(%)	-6.9	23.1	30.3	41.5	42.2
순이익(억원)	**34**	**155**	**286**	**1,018**	**1,308**
EPS(원)	269	1,219	2,254	8,029	10,319
YoY(%)	0.0	352.9	84.9	256.2	28.5
PER(배)	91.2	25.8	27.7	7.8	6.0
PCR(배)	-126.4	25.3	41.3	10.8	8.4
PBR(배)	1.5	1.9	3.4	2.5	1.8
EV/EBITDA(배)	-189.0	20.7	21.9	6.0	4.2
ROE(%)	3.3	7.4	13.0	37.0	34.3



[IT 미드스몰캡] 박희철
3771-9342
parkh@iprove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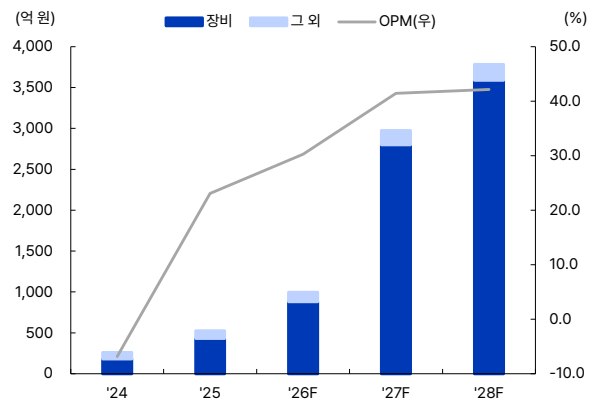
반도체 기판의 미세 회로 검사와 수리 장비 제조 기업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의 미세회로를 검사하고 결함을 수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4 년 설립된 이후 FC-BGA 와 같은 패키지기판을 제조하는 업체에게 AOI(자동광학검사기)와 AOR(자동광학수리기)을 공급해왔다. 동사의 장비들은 기판 제조 과정에서 회로 패턴의 결함을 검출하고, 수리 가능한 불량을 복원해 후속 공정에 투입할 양품 확보를 지원하는 장비들이다. **핵심 고객사는 삼성전기와 Ibiden 과 같은 선도 패키지기판 업체들을 확보하고 있다. Top-Tier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기판 업체들 대부분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핵심 제품인 AOI 는 회로 이미지를 취득해 패턴의 결함을 찾는 장비다. 고객마다 사용하는 소재와 회로 패턴, 가공 조건이 달라 결함의 종류와 형태를 구분하는 판별 로직이 중요하다. 동사는 고도화된 로직을 고객사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AOR 은 검사로 확인한 결함 중 복원 가능한 부분을 수리하는 장비로, 여러 공정을 거친 기판을 폐기하지 않고 양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이다. 동사는 고객의 생산 라인과 불량 특성에 따라 두 장비를 함께 공급하거나, 필요한 공정을 개별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력 장비 외에도 기판의 투입, 이송 장비 간 연결을 담당하는 FA 와 결함 확인을 지원하는 VMS 와 검사 및 수리 결과를 확인하는 장비인 VRS 도 존재한다. 2026 년 상반기 매출 기준 AOI 가 약 49%, AOR 이 약 10%, 기타 약 41%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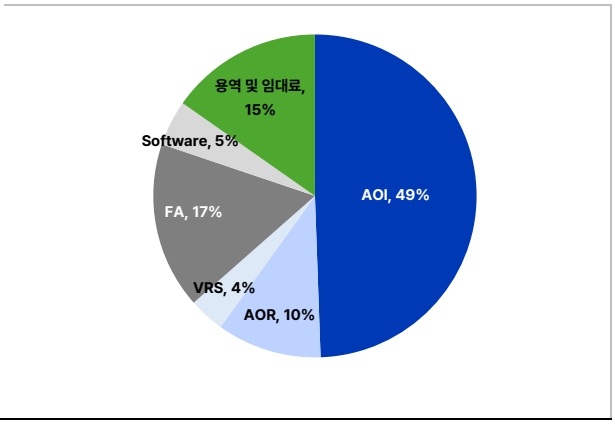
기가비스의 핵심 경쟁력은 미세 회로의 검사와 수리를 고객의 양산 조건에 맞춰 구현해온 선도적인 레퍼런스이다.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결함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 작업이 늘어나고, 수리 과정에서도 퀄리티가 부족하면 양품 확보라는 고객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동사는 뛰어난 광학 성능과 함께 결함 판별 수리 로직, 고객별 공정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상대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및 수리 장비를 제공함에 따라 산업 내 견조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고객과 축적한 레퍼런스가 해외 현지 지원 체계와 결합돼 고객 맞춤형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후속 세대 제품군에서도 입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도표 1] 기가비스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기가비스 2Q26 반기보고서 기준 매출 비중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패키지기판 투자 확대와의 필연적인 동행

기가비스는 AI 향 패키지기판의 증설 확대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AI 반도체의 물량 수요가 늘어나는 데 더해, 기판의 대면적화와 고다층화는 동일한 출하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정 부담도 높이고 있다. **기판업체들은 증가하는 주문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양 고도화에 따른 생산 부담까지 보완해야 하므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가비스는 FC-BGA 기판을 생산하는 글로벌 Top-Tier 제조업체에 검사·수리 장비를 공급해온 기업으로, 이러한 고객의 증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객 기반과 양산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

AI 반도체의 연산성능 향상과 복수 다이 통합, 고속 I/O 요구 확대는 고성능 패키지기판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FC-BGA 기판은 GPU, ASIC, CPU 등 고성능 프로세서의 대면적·고다층 패키지에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특히 Agent AI 시대에는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 계획, 도구 호출, 결과 평가가 반복되면서 프로세서가 수행해야 할 작업량도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는 모델의 추론 성능과 함께 추론 전후의 작업을 처리하는 역량도 중요해진다. GPU나 ASIC이 추론한 이후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모델에 다시 입력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CPU의 처리 지연이 누적되면 전체 작업의 완료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AI 연산을 담당하는 가속기뿐 아니라 CPU의 처리 성능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AI 시스템의 성능 요구가 GPU·ASIC의 연산 능력에서 CPU의 처리 역량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FC-BGA용 ABF 기판의 생산능력 확충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증설은 이미 선도적인 양산 레퍼런스를 갖춘 Top-Tier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부하 증가와 고객사의 투자 지원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면적화와 고다층화는 같은 출하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 부담을 높인다. 기판 면적이 커지면 동일한 제조 패널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판 수량이 줄어들어, 같은 출하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패널을 처리해야 한다. 고다층화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빌드업, 비아 및 배선 형성, 검사 공정이 반복되므로 설비의 실질적인 Throughput도 낮아진다. Ibiden이 제시한 중장기 제조부하 상승 전망도 AI GPU·ASIC용 약 3배, 범용 서버 CPU용 약 2배 수준이다. **물량 증가에 사양 고도화에 따른 생산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출하량 증가만을 기준으로 예상한 수준보다 큰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생산능력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기판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Capex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선도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은 과거 증설기보다 수 배 커진 수준이다. 다만 이번 투자에서는 기판 제조업체의 자체 자금뿐 아니라 고객사의 선수금도 증설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객사들이 필요한 기판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판업체들의 투자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자금 지원은 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집행 여력을 뒷받침한다. **최종 수요처의 공급 확보 움직임이 기판 주문을 넘어 증설 자금 지원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대된 ABF 기판 투자계획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도표 3] Agentic AI 확산에 따른 CPU 작업량과 요구 성능 확대

작업 단계	증가 작업	요구 성능
요청 당 실행 단계 증가	도구 호출·코드 실행을 반복 처리	코어당 성능, 실행시간 단축
외부 데이터 활용 확대	가공·데이터 처리 및 후속 추론에 전달	메모리 대역폭, 메모리 접근 지연
동시 실행 Agent 증가	다수의 실행 환경과 작업을 병렬 관리	코어 수, 동시 처리능력
추론과 실행의 반복	후속 추론의 진행 시점을 결정	낮은 처리 지연, 과부하 유지 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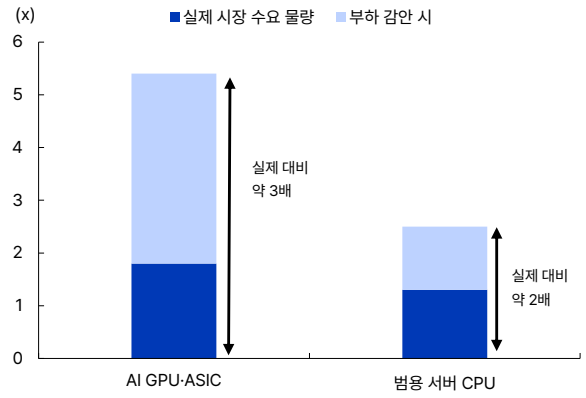
자료: Nvidi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AI 향 기판의 대면적/고다층화 추이

연도	가로(mm)	세로(mm)	적층 표기
2025	80	80	9-X-9
2026	90	90	10-X-10
2028	110	110	12-X-12
2030 이후	130+	130+	14-X-14

자료: Ibid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AI 로 인한 패키지기판 제조 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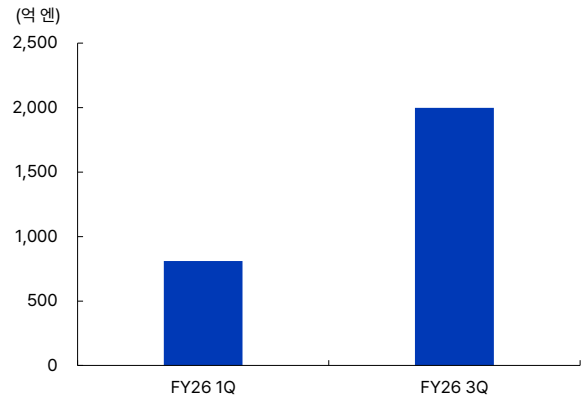
자료: Ibid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고도화되는 검사/수리 제품군

제품군	제품명	Line/Space
AOI	InSmart Extreme	5/5
	InSmart Ultimate	4/4
	InSmart Nano 2/2	2/2
AOR	SSR-IV	5/5
	SSR-V	2/2

자료: 기가비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글로벌 Top-Tier 제조사 Ibiden 선수금 잔액 추이



자료: Ibid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Nvidia 의 패키지기판 Capa 할당 노력

협력 기판 제조사	협력 상세	목표
삼성전기	세종과 부산 Capa 확대 지원	'28 년까지 Capa 할당 가속
Ibiden	Ono 공장 지원에 선급금 활용	현재 Capa 3 배
Unimicron	KF Capa 확장 지원	2Q27 부터 본격 Capa 확대
Nvidia 공급 목표	**향후 3 년간 패키지기판 Capa 2.5 배 증가**	

자료: Nvidi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역대급 패키지기판 투자 사이클 도래

패키지기판 산업은 과거 증설기를 상회하는 규모의 투자가 예고되고 있다. 주요 ABF 기판 제조업체들이 동시에 투자계획을 확대하면서 장비 수요의 기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Ibiden 은 FY2022 와 FY2023 에 각각 약 1,313 억엔과 1,466 억엔의 Capex 를 집행했으나, FY2026 과 FY2027 계획은 각각 약 2,100 억엔과 3,500 억엔으로 과거 사이클 대비 약 2 배의 규모의 Capex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기도 과거 1.9 조원 규모의 FC-BGA 기판 투자에 이어 올해 세종과 베트남에 총 약 7 조원 규모의 다년 투자를 발표했다. 연간 투자계획의 상향과 함께 중장기 증설사업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언급한 AI 반도체 물량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기판의 생산 부담에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면적화와 고다층화는 패널당 취득 수량을 줄이고 공정 반복 횟수를 늘려, 같은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판 수량을 제한한다. Ibiden 이 2026~2030 년 AI GPU·ASIC 시장의 물량 확대를 약 1.8 배로 전망하면서도 제조부하 상승을 반영한 공정 수요는 약 5.4 배로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의 공급 부담은 납기에서도 드러난다. TrendForce 의 자료에 따르면 ABF 기판 리드타임은 최근 48~56 주를 유지하며, 수급 균형 시 기준인 12 주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ABF 기판에 대한 생산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문이다.

또한 향후 생산능력 확충 계획을 감안하면 최근의 투자 기조가 단기적인 증설로만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차세대 제품의 요구 사양이 높아질 수 있어, 생산능력 확보와 공정 고도화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수요처들도 개별 발주를 넘어 중장기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계약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NVIDIA 는 복수의 기판 공급사와 협력해 향후 3 년간 자사 제품용 기판 생산능력을 2.5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고부가 수요처의 공급 확보 움직임이 여러 제조업체의 다년 투자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에 주요 증설의 가동 목표도 2028 년부터 2030 년까지 분산돼 있다. **장비 발주는 각 생산라인의 구축 일정에 따라 가동에 앞서 진행되겠지만, 증설 일정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는 점은 공급 기회가 단일 연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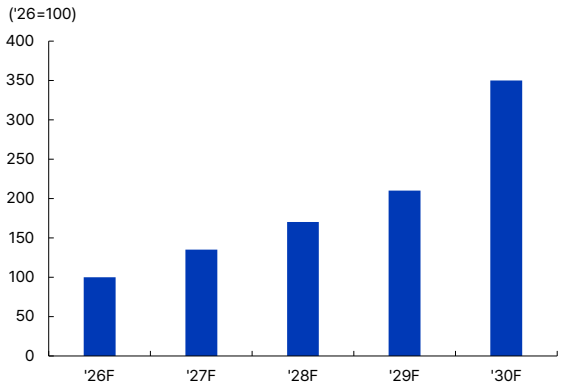
기가비스는 이러한 산업의 투자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객 기반과 양산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한 기업이다. 글로벌 Top-Tier ABF 기판 고객의 생산라인에 장비를 공급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의 신규 증설과 고사양 라인 구축에 함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전체 신규 수주와 최근 공시된 수주를 합산하면 약 2,700 억원의 신규 수주가 확보돼, 현재의 장비 수요 확대가 실제 수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별개로 주요 고객사와 중화권을 포함한 다른 Top-Tier 업체들과도 후속 발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공급 기회도 형성되고 있다. **현재의 수주 호조에 더해 주요 고객사의 확대된 투자계획과 다년간의 생산능력 확충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기가비스의 현재는 과거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수주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판단한다.**

[도표 9] 병목이 지속되는 ABF 기판 리드타임 추이

발표일	ABF 리드타임	발표일	ABF 리드타임
'26.09.14	48~56 주	'26.10.12	48~56 주
'26.09.21	48~56 주	'26.10.19	48~56 주
'26.09.28	48~56 주	'26.10.26	48~56 주
'26.10.05	48~56 주	'26.11.02	48~56 주
정상 리드타임		12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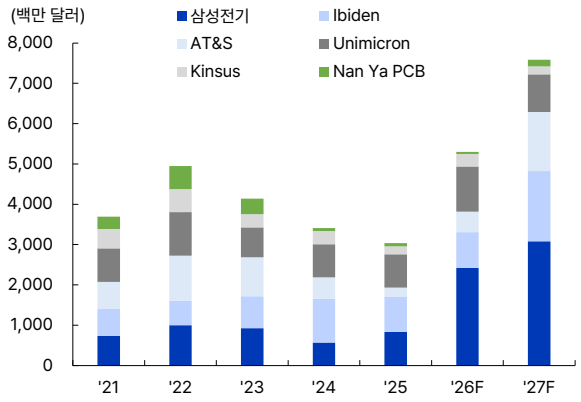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SAP 수요 지수 추이



자료: Ibid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대표 ABF 기판 제조 기업들의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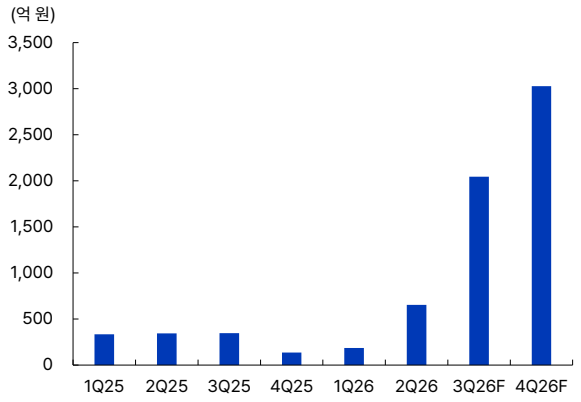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중장기간 예정된 Capex 추이

제조사	사이트	내용
삼성전기	세종	'26.09~'28.05 투자 집행
	베트남	'30.06 완공 목표
Ibiden	Ono	FY27 부터 램프업 시작
	Gama	FY29 하반기 가동 목표
Unimicron	KF	'272Q 부터 램프업, '282H 본격 가동

자료: 삼성전기, Ibiden, Unimicro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기가비스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 및 전망치



자료: Dar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2Q26 이후 신규 수주 공시 목록

시작일	종료일	공급처	금액(억 원)
'26.07.06	'27.03.15	중국	151
'26.07.06	'27.01.31	한국	100
'26.07.24	'27.02.28	대만	223
'26.07.28	'27.07.28	중국	65
'26.07.28	'28.01.01	일본	300
'26.08.10	'27.04.20	중국	111
'26.08.18	'27.09.30	일본	90
'26.09.14	'27.12.27	일본	130
'26.10.22	'27.12.31	한국	469
'26.10.27	'27.10.30	중국	306
반기 보고서 이후 합산			**1,944**

자료: Dar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전망 및 Valuation

기가비스는 올해부터 본격화된 신규 수주 추이와 강한 업황을 반영해 2027 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2027 년 매출액은 2,974 억원 (YoY +198.0%), 영업이익 1,233 억원(YoY +307.8%, OPM 41.4%)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번 FC-BGA 투자 사이클은 과거 대비 규모가 크고 중장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AI 투자의 속도 조절과는 무관하게 반도체의 고성능화가 이번 패키지기판 증설 사이클을 지지한다는 점이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내년에도 긍정적인 수주 추이를 이어나가며 2028 년까지도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2028 년에는 고성능화에 따른 투자가 이어짐에 따라 매출액은 3,784 억원 (YoY +27.2%), 영업이익 1,595 억원(YoY +29.4%, OPM 42.2%)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동사는 최근 집행한 Capa 투자로 증가하는 수요에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유리기판과 같은 차세대 생산 라인 투자 속에서도 FC-BGA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 침투를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도표 15] 기가비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

	1Q26	2Q26	3Q26(F)	4Q26(F)	1Q27(F)	2Q27(F)	3Q27(F)	4Q27(F)	FY26(F)	FY27(F)	FY28(F)
매출 합계	**60**	**223**	**309**	**406**	**526**	**715**	**833**	**899**	**998**	**2,974**	**3,784**
장비	36	191	279	373	489	672	786	850	879	2,798	3,588
그 외	24	32	30	33	37	43	47	49	119	176	196
YoY (%)	*29.9*	*150.8*	*327.3*	*28.2*	*779.1*	*220.6*	*169.8*	*121.3*	*90.3*	*198.0*	*27.2*
QoQ (%)	*(81.1)*	*272.5*	*38.4*	*31.6*	*29.6*	*35.9*	*16.5*	*7.9*			
영업이익	**(10)**	**66**	**99**	**147**	**200**	**299**	**354**	**379**	**302**	**1,233**	**1,595**
OPM (%)	*(16.2)*	*29.6*	*31.9*	*36.2*	*38.0*	*41.9*	*42.5*	*42.1*	*30.3*	*41.4*	*42.2*
YoY (%)	*(49.7)*	*225.1*	*1,038.5*	*32.3*	*흑자전환*	*353.1*	*259.1*	*157.2*	*149.8*	*307.8*	*29.4*
QoQ (%)	*적자전환*	*흑자전환*	*49.2*	*49.3*	*36.0*	*49.6*	*18.3*	*6.9*			
지배주주순이익	**6**	**60**	**84**	**136**	**163**	**248**	**294**	**313**	**286**	**1,018**	**1,308**
YoY (%)	*흑자전환*	*330.2*	*304.8*	*10.5*	*2,470.3*	*313.5*	*250.8*	*130.6*	*84.9*	*256.2*	*28.5*

자료: Company dat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기가비스 P/E Valuation (단위: 원, 배, %),

구분	기업가치	비고
27F EPS	**8,029**	**2027 년 추정 EPS**
Target P/E	20	글로벌 검사/계측 장비 Peer 27F P/E 평균
목표주가	**160,000**	
현재주가	62,400	2026.11.6 종가 기준
상승여력	156.4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기가비스 420770]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12 결산(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61	524	998	2,974	3,784
매출원가	140	241	505	1,511	1,932
매출총이익	121	284	493	1,463	1,852
매출총이익률 (%)	46.3	54.1	49.4	49.2	48.9
판매비와관리비	139	163	191	230	257
영업이익	-18	121	302	1,233	1,595
영업이익률 (%)	-6.8	23.1	30.3	41.4	42.2
EBITDA	-10	129	326	1,264	1,626
EBITDA Margin (%)	-3.8	24.6	32.6	42.5	43.0
영업외손익	62	33	41	44	66
관계기업손익	0	0	0	0	0
금융수익	47	40	36	35	58
금융비용	-7	-8	-8	-8	-8
기타	21	1	13	17	1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4	154	344	1,277	1,662
법인세비용	10	-1	58	259	354
계속사업순손익	34	155	286	1,018	1,308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4	155	286	1,018	1,308
당기순이익률 (%)	13.1	29.5	28.6	34.2	34.6
비지배지분순이익	0	0	0	0	0
지배지분순이익	34	155	286	1,018	1,308
지배순이익률 (%)	13.1	29.5	28.6	34.2	34.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0	0	0	0	0
기타포괄이익	-2	0	0	0	0
포괄순이익	32	154	286	1,018	1,308
비지배지분포괄이익	0	0	0	0	0
지배지분포괄이익	32	154	286	1,018	1,308

주: K-IFRS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기타영업수익/비용 항목은 제외됨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12 결산(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1,796	1,845	1,742	2,597	3,823
현금및현금성자산	201	398	102	64	86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96	153	327	773	977
재고자산	182	156	416	1,238	1,576
기타유동자산	1,216	1,138	897	521	404
비유동자산	501	548	853	968	971
유형자산	409	458	763	879	882
관계기업투자금	17	18	18	18	18
기타금융자산	0	10	10	10	10
기타비유동자산	74	62	62	61	61
자산총계	2,297	2,393	2,594	3,565	4,794
유동부채	39	82	99	153	17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2	29	46	101	123
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6	53	53	53	53
비유동부채	201	201	201	201	201
차입금	200	200	200	200	200
사채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	1	1	1	1
부채총계	240	283	300	354	376
지배지분	2,057	2,110	2,294	3,211	4,417
자본금	25	25	25	25	25
자본잉여금	1,025	1,025	1,025	1,025	1,025
이익잉여금	1,007	1,060	1,244	2,161	3,367
기타자본변동	0	0	0	0	0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2,057	2,110	2,294	3,211	4,417
총차입금	200	200	200	200	200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12 결산(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 현금흐름	30	257	-116	-178	808
당기순이익	34	155	286	1,018	1,308
비현금항목의 가감	-59	3	46	252	325
감가상각비	8	7	23	30	31
외환손익	-11	14	-23	-26	-26
지분법평가손익	4	-1	0	0	0
기타	-60	-17	46	248	320
자산부채의 증감	62	30	-417	-1,215	-519
기타현금흐름	-7	69	-31	-233	-305
투자활동 현금흐름	-237	52	1,173	1,490	1,344
투자자산	0	14	0	0	0
유형자산	-319	-46	-328	-147	-34
기타	82	84	1,501	1,637	1,377
재무활동 현금흐름	99	-101	-101	-101	-101
단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00	0	0	0	0
자본의 증가(감소)	0	0	0	0	0
현금배당	-101	-101	-101	-101	-101
기타	0	0	0	0	0
현금의 증감	-104	196	-296	-38	803
기초 현금	0	201	398	102	64
기말 현금	-104	398	102	64	866
NOPLAT	-14	122	251	983	1,256
FCF	-263	113	-470	-348	734

주요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 결산(십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EPS	269	1,219	2,254	8,029	10,319
PER	91.2	25.8	27.7	7.8	6.0
BPS	16,227	16,646	18,100	25,329	34,848
PBR	1.5	1.9	3.4	2.5	1.8
EBITDAPS	-79	1,017	2,570	9,968	12,830
EV/EBITDA	-189.0	20.7	21.9	6.0	4.2
SPS	2,062	4,137	7,874	23,462	29,853
PSR	11.9	7.6	7.9	2.7	2.1
CFPS	-2,073	891	-3,708	-2,748	5,790
DPS	800	800	800	800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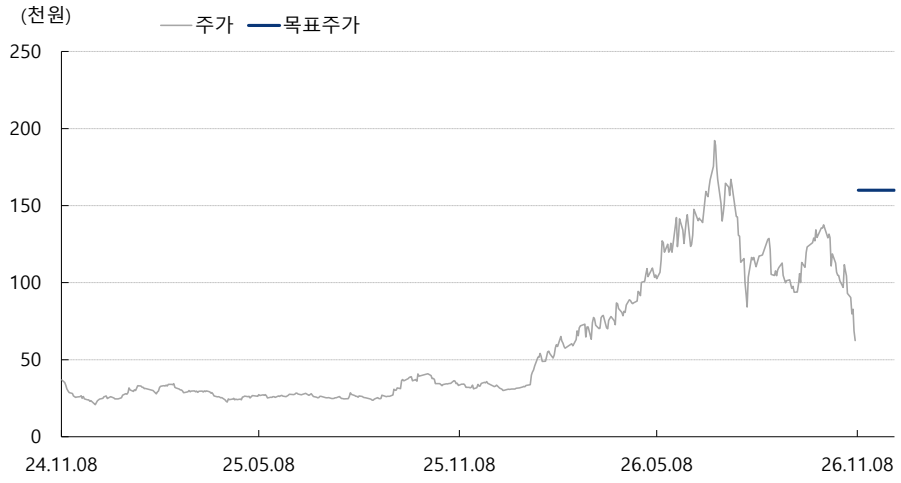
재무비율

단위: 원, 배, %

12 결산(십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NA	100.6	90.3	198.0	27.2
영업이익 증가율	NA	흑전	149.8	307.8	29.4
순이익 증가율	NA	352.9	84.9	256.2	28.5
수익성					
ROIC	-3.6	16.5	23.4	46.8	41.5
ROA	3.0	6.6	11.5	33.0	31.3
ROE	3.3	7.4	13.0	37.0	34.3
안정성					
부채비율	11.7	13.4	13.1	11.0	8.5
순차입금비율	8.7	8.4	7.7	5.6	4.2
이자보상배율	-2.7	16.9	40.2	163.9	212.1

자료: 기가비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기가비스 최근 2 년간 목표주가 변동추이



최근 2 년간 목표주가 및 괴리율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26.11.09	매수	160,00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6.09.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6.4%	3.6%	0.0%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